은혜 덧대기 중독

(창30:25~43)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 튼튼한 양이 새끼 밸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은혜에 덧대기 중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은혜에 덧대기 중독'
야곱의 일대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참 흥미진진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 간에 통용되던 주술 같고 미신적인 행동으로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양들이 개천에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할 때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보면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온다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또 그렇게 되었어요. 효과가 있어서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것이 이유가 되었다기보다는 야곱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룩점이 없는 양들도 새끼를 낳았을 때 얼룩이가 나오게 됐다고 야곱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근본적으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라헬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들도 11명이나 되었으니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월이 14년이나 흘렀으니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외삼촌 라반이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면서 계속 자신의 양떼를 더 돌보라고 합니다. 14년 동안을 했는데 더 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까지 아내와 자식들만 늘었을 뿐 내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제부터는 일한대로의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데, 라반의 천부적인 거래 능력이 또 나타납니다. 라반은 절대로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지를 않고, 야곱에게 그동안의 공(功)을 돌리면서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야곱이 양의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롱진 것은 무늬가 희미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얀색이 아닌 검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흰색의 양들이 아니고 얼룩얼룩한 양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진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양떼를 볼 때에 얼룩무늬가 있거나 검거나 점박이거나 이런 것들만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너무 이상하고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라반으로서는 내심 '야, 정말 멍청한 놈 아니냐? 내가 14년 전에 품삯을 이야기 할 때에도 라헬을 달라고 할 때 속여서 레아를 주고 7년을 더 일하게 했는데, 지금 또 품삯에 대해서 멍청한 소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31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양떼를 모는 목자들에게 주는 품삯이 있었을 것이고 품삯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정해진 것이 있지만 사위이면서 14년간 일을 했으니 양 몇 마리라도 품삯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이상하게 점박이와 얼룩얼룩한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색을 달라고 합니다.
이유를 봤더니 31장 10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양 떼가 새끼 밸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 말은 꿈을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11절부터 자세하게 풀어서 뭐라고 하느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언제 꾼 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양의 교미시기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해서 보니 교미하는 모든 숫양이 얼룩무늬이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한 모든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야곱이 그게 무슨 꿈인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꿈을 꾸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꾸는 개꿈과는 다른 계시가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 딱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사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말씀드릴만한 것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커리큘럼 문제 때문에 신학과 학생 1,000명과 함께 데모를 주동하다가 제가 1학기 중반부터 시작한 데모가 끝나고 2학기에 들어와서 자진 휴학을 했습니다. 아침에 꿈을 꾸는데 실천신학의 한 교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춘향전에서 이 도령에 대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변 사또 앞에서 춘향이가 썼던 칼을 들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칼을 씌우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서 깼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실 때에도 저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휴학 중이었지만 집이 학교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왜 부르셨는지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영어로 된 QT책이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해주면 다달이 생활비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새벽에 이 교수님이 칼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던 그 꿈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학생들이 전단을 뿌리는데 태 승철이 데모를 그만 둔 이유는, 어떤 교수님이 한강 호텔에서 로비를 해서 태 승철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자기 혼자 받아먹고 데모를 중단하고 싹 빠져나왔다는 전단이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걸 승낙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학교에서 잘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휴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날 뻔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수님이 학생처장이셨는데 문제 학생 지도차원에서 저를 옆에 두시려고 했던 것을, 저를 만나기도 전에 학생과장 직원이 학생들에게 퍼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먹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뻔 했는데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라반이 품삯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했을 때에 그 생각이 딱 났을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잘 태어나지도 않는 얼룩이와 점박이와 검은 양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은 웬일인가 싶었겠죠.
만약에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간 일하지 않고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양떼나 염소를 가지고 품삯을 정해서 일했으면 14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재산이 있었을 것이고, 라반은 라헬과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을 야곱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품삯을 정하는데 점박이와 얼룩무늬와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라반으로서는 횡재한 것이죠. 그런데 라반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모든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이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품삯의 계약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하얀 숫양과 암양에게서도 얼룩무늬가 태어나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얼룩무늬가 태어나고 점박이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유전자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향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야곱의 중독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은혜의 덧대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라반과 협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점박이와 얼룩이와 아롱진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의 계시까지 받았으면, 이제 야곱이 하는 일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정말 내 양떼 돌보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돌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넉넉할 만큼 다 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나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주셔서 14년 동안 이렇게 재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겹쳐 놓습니까? 색깔이 다른 것을 서로 겹쳐놓으면 얼룩얼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면 그런 것들이 태어난다고 믿었지만 미신일 뿐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탄 숫양들이 다 점박이고 얼룩이라는 것은 새끼들이 다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 껍질로 만든 것을 양들에게 보이면서 어떤 짓을 하느냐?
튼튼한 양들의 교미 때에는 그것을 보게 하고,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양들에게는 치워버려서 흰 양이 나오게 합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인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덧대면서 은혜를 도둑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도둑질이잖아요.
외삼촌의 양 중에 튼튼한 것에게는 얼룩무늬 가지를 보여주고, 약한 것들에게는 치우고, 그 마음은 이미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으로는 이미 도둑질을 한 것인데 은혜로 다 주어지기로 되었던 것들을 괜히 내 수고와 노고를 덧대어서 은혜를 도둑질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고, 이삭도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비교를 해보면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은 은혜를 받을 줄 모르고 은혜에 덧대기 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장자권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속에서 정하셨다고 리브가에게 계시가 되었으면,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리브가도 야곱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고, 또 요셉이 라헬에게서 태어났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야곱의 부인이 되는 것은 정해져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내가 덧대요. 은혜에 덧대기 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들여보냈다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혼 줄을 내시고 바로가 사라를 돌려보낸 후에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대가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고 합니다. 대 제국의 왕이 아내를 얻으면서 준 선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뒤로 바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라를 내보낼 때에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고 12장에서 끝나고, 곧바로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나옵니다.
재산이 불어날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받은 것이 그

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로의 재산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수를 쓰거나, 그것을 바라고 사라를 바로에게 들여보냈다면 은혜가 도둑질이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들여보낸 것은 비겁하거나 불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만큼 하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오지 못함을 알고 아내를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사라지더라도 누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벌기 위해서 사라를 내보냈을 때에, 사라가 계기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재산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고 사라를 내보냈는데, 그 내보낸 사라가 재산을 끌고 돌아옵니다.

이삭도 비슷한 거예요. 이삭이 부자가 될 때의 묘사가 26장에 나옵니다.
그것도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리브가를 누이로 속입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바로에게 직접 들여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와 이어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또한 아내인 리브가를 아브라함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벌기 위하여 마음에서 리브가를 빼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일과 연관 지어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라헬이 자기 눈에 예쁘게 보이는 대로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속아서 레아를 얻고, 또 7년 동안 일해서 14년 동안 아내와 자식들만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꾸 이미 결정된 은혜에 덧대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가며 얼룩무늬를 만드는 수고를 하느냐? 야곱은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야곱의 마음에 양떼가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이 세상 것 중에 좋아하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계속 내가 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될 것을 왜 이 짓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은혜의 덧대기 중독을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을 많이 주시겠다는 계시를 주셨더라도 내 마음에 재산을 담아버리면 야곱이 나의 자화상이 됩니다.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은혜에 덧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주시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은혜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나는 그 재산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서도 월급 받겠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십자가 생활화밖에 없어요.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벌어들이고 하나님을 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월급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의 덧대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마귀에게 이끌려서 은혜의 덧대기 중독에 걸려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얼룩무늬의 양이 태어났다고 해서 내 행동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야곱의 심정을 오늘 표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자식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창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단 한 가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사람과 마주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버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날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직장에 가면 내가 어떻게 직장 상황에 반응하고 동료나 사장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벌면 나머지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나머지 모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은혜의 덧대기가 되어버리고 도둑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은혜로 주어질 것을 왜 도둑질합니까?

보세요.

바로 왕에게서 아브라함이 얻은 모든 은금과 가축들은 남의 것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바로 왕의 소유가 옮겨졌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바로의 재산에 대해서 탐내는 마음이 있었다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움으로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벌려고 했더니 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말을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마귀가 심어준 도둑놈의 말인 거예요.
은혜의 덧대기 중독은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벌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에 이 세상 것은 거저 주어지는 대로만 사세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되, 세상 것은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호리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바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그 존재되심을 우리 마음에 많이많이 벌어들이는 것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덧대기 중독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나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거저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매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덧대기 중독이 야곱에게서처럼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